



## ‘큰 울림’ 만든 적극행정의 힘

여수시 소호동 일원. 직선 거리 700m 내에 위치한 2개 아파트 단지 4개 동 7개 세대에서는 매일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펼쳐진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야’ 선수로 매일같이 여수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로 출근해 연습하는 A씨, 1년 넘게 클라이밍과 색소폰을 배우며 취미 가꾸기에 한창인 B씨 등 총 30명의 입주자들이 4-5명씩 모여 살며 일상을 꾸리고 있다.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이 특별한 것은 입주자 모두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아파트형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행빌리지’ 이다.

동행빌리지 입주자들은 모두 중증장애

인 시설인 여수 동백원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평생 살아온 시설에서 벗어나 도심 아파트로 온 이유는 뭘까. 김도요

### ●2020년 문연 여수 ‘동행빌리지’

전국 유일 아파트형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복지부 ‘시설 규정 안맞다’ 운영비 거부  
전남도·여수시, 밤낮 설득·시범운영 제안  
지역 주민들과 ‘한동네 이웃’ 성공 안착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개정까지 이끌어내

라도아파트 내 시설 조성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식당·치료실 등이 시설 내에 없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당시 광주·부산·대구 등 각지에 아파트형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점은 타 지역 시설에는 주로 경증장애인인, 동행빌리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한다는 것 뿐이었다.

결국 전남도와 여수시가 발벗고 나섰다. 여수시는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기 전 시 예산이라도 지원하겠다고 시범 운영을 제안했고, 전남도는 밤낮으로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설득에 나섰다. 행정편의가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의 결과물로 2019년 말 처

음으로 운영비 예산 4억 4천만 원이 집행됐다. 2020년 1월 첫 입주자 8명이 2개동에 입주했고, 예산이 확충되면서 2021년 7월 정원 30명을 채웠다.

입주자 모집부터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평생 시설에서만 살아온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는 살아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었다. 끊임없이 부딪칠 ‘세상’의 편견도 두려웠다.

아파트 구매 후 다른 입주주민들로부터 ‘이곳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다’, ‘여자 장애인만 들어와라’ 등 항의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동행빌리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설득에 나섰다.

아파트 구매 후 다른 입주주민들로부터 ‘이곳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다’, ‘여자 장애인만 들어와라’ 등 항의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동행빌리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설득에 나섰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간 결과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환자이송 대기하는 구급차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예고하면서 서울대의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 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들. /김애리 기자

## 조인철·김원이·문금주·손훈모 경선 승리

〈광주서갑〉

〈목포〉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 Ⓢ 총선 D-28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송갑석 국회의원(재선)을 눌렀다. 그러나 목포에서는 현역인 김원이 의원(조선)이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도전을 뿌리치고 공천권을 따냈다.

▶관련기사 34면

반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현역 김승남 의원(재선)이 정치신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패배해 3선 고지 도전이 좌절됐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정치신인끼리 맞붙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조인철



김원이



문금주



손훈모

### 민주당 광주 1곳·전남 3곳 경선 결과 발표

### 서갑 송갑석 패배...광주 현역 몰락 수준

이 같은 내용의 7-8차 경선 선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 8곳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전은 민형배 의원(광산)을 제외 한 7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정치 신인에 패하는 이변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전의 특징은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이 ‘몰락’ 수준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 북갑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준호 변호사가 탈락하고 경선 상대였던 조오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

긴 하지만, 이 같은 현역 초·재선 국회의원들의 몰락은 ‘호남정치 부활’을 외치고 있는 호남 정치권에 ‘어떻게 다선 정치인을 기를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민주당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나주·화순(신정훈·손금주·구충근) ▲영암·무안·신안(서삼석·김태성·천경배) ▲해남·완도·진도(박지원·윤재갑) ▲여수갑(주철현·이용주) ▲여수(김희재·조계원) 등 5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순천·광양·곡성·구례(서동용·권항평)의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18개 선거구별 민주당 공천 상황은 단수공천이 확정된 단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을 포함해 12곳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곳만 남겨 놓고 있다. /김진수 기자

## 광주시, ‘3대 사망사고’ 확 줄인다

광주시가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가 없는 ‘연세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자살·산업재해 3대 분야 사망 사고 제로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69억 8천 800만 원을 투입, 분야별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빅

데이터화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을 구축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시설물 교체 시기를 예측,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전통키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 /박성강 기자

## 제1기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대도약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전문 경영자와 각계 리더들의 학습·소통 공간인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에 함께 할 원우를 모집합니다.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 제1기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b>지원자격</b>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b>모집인원</b>	00명
<b>교육기간</b>	2024년 3월 21일(목) ~ 2024년 10월 중강(12강)
<b>강의시간</b>	격주 목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b>강의장소</b>	신안비치호텔
<b>전형방법</b>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예정)

 김계훈 교수 전남대의과대학	 박수중 소장 리엔경제연구소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승재 영화평론가	 조상열 대표 대동문화재단	 최윤희 2M커뮤니케이션
--	--	---	---	---	--